

광역자치단체의 커뮤니티웰빙 연구*

A Study of Community Well-Being of Local Governments

기영화** · 정서린***

Kee, Youngwha · Jung, Seo Lynne

■ 목 차 ■

- I. 서론
- II. 커뮤니티웰빙 선행연구
- III. 조사방법 및 자료수집
- IV. 분석결과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의 커뮤니티웰빙을 조사하고 지역자본에 따른 차이를 비교분석 하고자 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공급자의 관점에서 행정서비스 전달이라는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요자로서 지역 주민들이 인식하는 지역생활만족도와 지역생활환경평가를 조사하고 광역자치단체간 비교하였다. 커뮤니티웰빙의 조사는 다차원적 커뮤니티웰빙 모델에 기반하여 제시된 조사지를 사용한 2015년 전국 커뮤니티웰빙 자료를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은 제주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을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하였으며 전문조사원에 의한 Pi질문지 방식으로 수집된 2,723명의 자료가 포함되었다. 연구결과 광역자치단체의 커뮤니티웰빙 수준에 대한 지역생활만족도와 지역생활환경평가는 지역자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런 결과는 지방정부의 효율적 행정서비스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한정된 지방정부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투입을 위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3A2924563)

** 제1저자, 송실대학교 교수 key@ssdu.ac.kr

*** 교신저자, 서울대학교 커뮤니티웰빙연구센터 연구원

논문 접수일: 2018. 5. 9, 심사기간: 2018. 5. 9~2018. 6. 12, 게재확정일: 2018. 6. 12

□ 주제어: 커뮤니티웰빙, 지역자본, 지방정부, 지역생활만족도, 지역생활환경평가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mmunity well-being of the metropolitan municipalities and compare the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local capital. Local governments provide various service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but it is also pointed out that the delivery of administrative services from the supplier's point of view.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local life satisfaction and local living environment evaluation that the local residents perceived as a consumer and compared them among metropolitan municipalities. The survey of community well-being was based on the multi-dimensional community well-being model and used the national community well-being data for 2015 using the survey paper. The selection of the subjects was allocated by gender, age, and region and randomly selected over 19 years old residents except Jeju. 2,723 data collected by the PI questionnaire method. As a result of the study, regional life satisfaction and regional living environment evaluation for community well-being level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local capital. These results will provide policies for effective administrative services of local governments and provide data for efficient allocation of limited local government resources.

□ Keywords: Community Well-being, Local Capital, Local Government, Local Life Satisfaction, Local Environmental Evaluation

I. 서론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들의 필요와 요구에 대응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갖추어 왔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는 전달되는 내용으로부터 방식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의 환경과 주민의 특성에 따라 독자적인 형태로 발전되어 온 것이다(이승중, 2005).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가 주민들의 요구와 필요를 충족하는가에 대한 평가는 지방정부의 관심이 되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평가를 통해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방향과 지침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들은 자체적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노력은 삶의 질 조사, 행복조사, 웰빙조사, 건강도시 및 지역지속가능성 조사 등 다양한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평가들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지방정부 자체로 실시되는 만큼 그 결과에 대한 한계도 지적되고 있어, 다른 지방정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객관적 평가에 의한 비교도 필요로 하고 있다.

커뮤니티웰빙은 발전에 대한 생산중심의 패러다임에 대한 한계가 제기되고 대안적 개념을 찾으려는 다양한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논의 제시된 것이다. 지역의 발전을 측정하는 연구들은 물질을 넘어 개인의 지역생활에서의 만족도와 지역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에 초점을 두게 하였다(Smits & Hoekstre, 2011). 지역에 대한 지방정부서비스와 주민들의 삶에 질에 대한 관심은 물질중심의 행정으로부터 양적인 측정을 넘어서 질적인 지표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켰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역생활에 대한 질적 측정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높아졌고 이에 대한 다양한 시도들이 행정서비스에 반영되어 왔다. 이런 경향은 국제사회에서 “Beyond GDP”로 대변되는 다양한 연구들로 수행되어 오고 있다(Veenhoven, 2012; OECD, 2014).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국가에 따라 또는 특정 국가 내에서도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지표로 다른 방식으로 활용되어, 동일 지방정부가 측정지표 혹은 연구조사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기영화 외, 2014). 연구자마다 연구기관에 따라 다른 평가방식과 다른 지표로 측정된 결과는 지방정부에 활용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

이런 문제인식에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에 따른 서비스를 조정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자원을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자본에 따른 커뮤니티웰빙을 조사하고 비교하고자 한 것이다. 커뮤니티웰빙 조사는 개인의 지역생활만족도와 지역생활여건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어 주민들의 지역생활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와 지방정부 서비스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포함하고 있어 지방정부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행

정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만족도가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자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서재호 외, 2012; Phillips & Wong, 2017). 따라서 다차원적 커뮤니티웰빙 모델에 근거한 조사지를 활용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커뮤니티웰빙을 조사하고 지역자본에 따라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광역자치단체의 커뮤니티웰빙의 지역생활만족도와 지역생활환경평가 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광역자치단체간에 지역자본에 따른 차이는 어떠한가?

II. 커뮤니티웰빙 선행연구

1) 커뮤니티웰빙의 선행연구

커뮤니티웰빙의 연구는 삶의 질, 행복에 연구에 비해 최근에 관심이 나타났으며, 그 개념을 정의하고 이론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커뮤니티웰빙은 합의된 정의를 찾기는 어렵지만 그 개념이 복잡하고 다의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은 여러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다(Wiseman, Heine, Langworthy, 2006; Smits & Hoekstra, 2011; Lee et al, 2016; Kim & Lee, 2013). 특히 지방정부의 지역주민 삶의 질과 지역생활의 질적 향상에 대한 가치는 웰빙과 행복 등의 개념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웰빙의 경우 인간의 관계에서의 만족과 발전측면의 사회적 웰빙, 경제영향요인을 포함하는 경제적 웰빙, 주거환경 및 자연환경의 웰빙,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웰빙 등의 다양한 차원을 포괄한다(Kim & Lee, 2013).

Rath & Harter(2010)는 웰빙을 경제적 웰빙, 직업적 웰빙, 신체적 웰빙, 사회적 웰빙과 커뮤니티웰빙으로 제시하면서 이들 구성하는 다섯 가지 요인을 제시하면서, 개인이 거주하는 지역과의 연대감과 소속감을 개인차원의 커뮤니티웰빙의 요소로 제시하였다. 이들이 커뮤니티웰빙을 다양한 웰빙의 한 부분으로 간주한 것과 달리 AECOM(2009)과 Gartner(2007) 등의 전문연구기관들은 캐나다의 커뮤니티웰빙 연구를 통해 커뮤니티웰빙은 각 지역의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인을 포함하여 커뮤니티웰빙을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그 개념은 각 지역의 맥락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Wiseman & Brasher(2008)는 커뮤니티웰빙의 적용 수준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지역사회 뿐 아니라 그 지

역에 거주하는 개인들도 연구단위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포함한 커뮤니티웰빙에 대한 연구는 결국 지역단위에서 커뮤니티웰빙은 각 지역의 수준에 따라 사회, 경제, 문화, 정치적 환경에 따라 그리고 이들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접근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커뮤니티웰빙은 웰빙이나 행복을 지역사회에 단순 적용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가진 자원을 중심으로 접근된 개념으로 특정한 지역사회의 자원을 기반으로 그 지역사회의 거주민들의 삶의 만족도와 삶의 질에 대한 간주관적 평가를 시도한 것이다. 이 점은 커뮤니티웰빙에 대한 해외 선행연구들에서 드러나지 않고 있다. 캐나다의 Cagary 연구, 미국 플로리다주의 Jacksonvil 연구와 Seattle 연구가 그 사례이다. 켈거리연구는 시민들에 의해 지역사회의 웰빙을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타운미팅을 통해 시민들이 논의하였으며 지방정부에 의해 정책에 반영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지역발전지표의 개발은 지역의 발전 방향과 지역발전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예이다. 지역발전 지표는 지역발전 수준평가, 지역발전전략 도출하고 지역간 차등지원 기준 마련하고 사회 및 문화지표의 도출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왔다. 이때, 지역발전 지표의 주된 목적은 지역경제의 성장수준, 산업 및 사회기반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생산패러다임에 기초해왔다(Lee & Kim, 2017).

커뮤니티웰빙에 대한 관심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GDP 기반의 발전패러다임을 벗어나 사회발전에 초점을 둔 새로운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을 모색하려는 활동 가운데 부각된 것이다(김용하, 2009; 박명호, 2009; 장영식, 2009). 우리나라에서도 통계청(2011)을 비롯한 중앙정부차원의 사회발전 지표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그 시작은 국제사회의 지표체계를 비교분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중(1998)의 연구는 21세기 한국사회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의로부터 지역사회 주민들의 웰빙과 행복의 측정을 위한 연구를 통해 커뮤니티웰빙의 개념을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Lee & Philips, 2014).

국내외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커뮤니티웰빙 지표체계를 구성하게 하려는 연구는 커뮤니티웰빙의 다차원적 접근법으로 제시된 모형으로 발전되었다.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적용한 다차원적 커뮤니티웰빙 접근은 한국적 상황에서 2010년부터 조사를 시작하여 한국적 상황에 적용된 결과를 국제공동연구진들과 논의하면서 측정을 위한 커뮤니티웰빙의 구성요소들에 대한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다차원적 모델은 OECD, UN, UNESCO, EU, WHO 등 국제기구에서 연구된 관련 지표와 캐나다, 호주, 미국, 영국, 일본의 관련된 연구를 비교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 이들 지표는 각국 또는 해당 국제기구의 사용 목적에는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지만, 다른 국제기구나 다른 상황에 있는 국가 간의 일반적 적용에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국가내에서도 지역의 수준에 따라 지표의 수준은

상이할 수 있음이 지적되었다(소진광, 2004). 따라서 Lee et al(2016)의 연구는 해외 정부나 국제기구에서 사용하는 지표를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지방정부 중심으로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가 주민들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고 이를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커뮤니티웰빙을 측정하기 위한 각종 지표의 관련성과 현실적으로 지방정부수준의 데이터 가용성을 고려하여 척도로 구성된 매트릭스 평가 틀을 사용해 최종 지표 체계를 구성하였다.

커뮤니티웰빙은 이러한 다양한 요인을 포괄하여 제시한 것이다. 다차원적 접근은 커뮤니티웰빙 구성의 이론적 체계를 갖추고, 여러 영역을 개인, 가족, 사회적 차원을 모두 고려한 다차원적 접근을 통해 평가지표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커뮤니티웰빙의 평가 틀로 사용되기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멕시코, 네덜란드, 중국등에서 연구에 반영된 것이다(Philliphs & Wong, 2017). 본 연구에 적용된 다차원적 커뮤니티웰빙 모델은 지역자원과 자본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Tomaney(2015)는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 사용하던 지역사회의 웰빙 척도는 실용성과 이론성 모두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한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공동연구진에 의해 개발된 '커뮤니티웰빙의 다차원적 모델이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2) 커뮤니티웰빙의 측정

본 연구에 적용된 커뮤니티웰빙의 다차원적 모델은 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관적 만족도와 지역환경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커뮤니티웰빙은 개인이 느끼는 심리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또는 그 사회의 참여를 통해 달라질 수 있어 사회적 요인도 포함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지역이 가지고 있는 환경적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살기 좋은 공간이나 지역의 인프라와 같은 요인들도 포함하고 있다(Atkinson & Painter, 2012). 다차원적 모델은 커뮤니티웰빙의 구성요인을 지역자원과 지역자본으로 접근하였으며 측정지표들을 여섯 가지 지역자본으로 제시하고 있다. 커뮤니티웰빙은 지역의 자원에 대한 접근으로 인적 자원, 사회적 자원, 자연자원의 세 가지 자원을 개인, 가족, 사회의 세 가지 수준에서 접근한 것이다 세 가지 형태의 지역자원은 각각의 지역자본으로 생성되고 있어 여섯 가지 형태의 지역자본으로 구분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적자원은 지역의 해당자원을 인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으로 생성되고, 사회적 자원은 사회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으로 생성되고, 자연자원은 인프라자본과 자연자본을 생성하는 것으로 구체화하였다(Lee & Philips, 2014). 구체적으로 각 지역자본을 측정하는 지표는 다양한 선행연구들의 지표들을 비교분석하여¹⁾ 목록으로 정리한 것을 2010년 서울과 경기

도의 공무원, 전문가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계층적의사결정(AHP) 분석을 사용하여 도출된 지표들로 국제공동연구진에 의해 검토조정된 것이다(표1)참조). Thomany(2014)는 커뮤니티웰빙 다차원적 모델이 지역의 상이한 자원과 자본으로 접근하고 개인, 가족, 사회의 세 가지 다른 대상들에 초점을 두고 있어 특정한 대상에 관심을 두고 논의가 이루어졌던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커뮤니티웰빙을 보다 거시적 차원에서 다룰 수 있도록 다차원적으로 접근하여 체계적인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Kee, 2017).

〈표 1〉 커뮤니티웰빙의 영역과 측정

| 항목 | 세부영역 | 측정 |
|-----------|-------|--|
| 인적 자본 | 보건 | 지역건강상태, 의료서비스 |
| | 복지 | 노인서비스, 장애인서비스, 보육지원서비스, 전반적 복지서비스 |
| | 교육 | 공공도서관, 평생교육서비스, 교육환경 |
| 경제 자본 | 고용 | 실업자 지원정책, 개인 일자리 |
| | 지방재정 | 재정 규모, 예산 운용 |
| | 지역경제 | 전반적 경제적 상황, 지역 생활비 |
| 자연 자본 | 환경 | 재활용 및 쓰레기수거 서비스, 공기오염도 수준, 공원·녹지 공간 수준, 골목과 거리청결도, 주변소음 수준 |
| 인프라 자본 | 교통시스템 | 대중교통, 도로 상태 수준 |
| | ICT | 인터넷 무료공공장소 제공 수준 |
| | 안전 | 자연재해대비 안전 수준, 치안수준, 경찰서비스 수준 |

1) 커뮤니티웰빙의 다차원적 모델은 2010년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지원으로 이루어진 국제공동연구진에 의해 연구된 것으로 자국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년차포럼을 통해 해외연구자들과의 검토로 조정이 이루어졌다. 커뮤니티웰빙의 지표의 구성은 Sarah C, White, 2008; John Wiseman, Katheen Brasher, 2008; M. Cuthill(2002; Institute of Wellbeing, 2009; Curnmnis, R.,Eckersley F., 2003;John Wiseman et al, 2006; The city of Calgary, 2006, Gartner Lee Ltd, 2007; Sophia C. et al., 2001; Dianne Cox et al., 2010에서 제시되었던 커뮤니티웰빙의 측정지표와 Cooke & McHardy(2004)의 Human Development Index와 City of Calgary (2005)의 사회적 지표 및 소진 광(2004)의 사회적 자본의 개념요소를 참조하였다. 또한 Community Indicator Victoria, OECD Better Life Index, The Canadian Index of Wellbeing, UN Sustainable Development Index 등을 포함한 국제지표와 Mguni, N and Bacon, N.(2010), Marks, N and Steuer, N.(2008), Smale, B., Labonté, et al.(2011), John Wiseman, Warwick Heine, Anne Langworthy, et al.(2006), Jab Pieter Smits, Rutger Hoekstra(2011) 등이 참조되어 되었다.

| 항목 | 세부영역 | 측정 |
|-------------|------------|---|
| 문화 자본 | 문화활동 | 여가생활수준, 주민자치센터/경로당 문화 프로그램 수준 |
| | 지역문화 공간 | 지역문화공간 |
| | 지역문화 자산 | 지역문화재, 지역축제, 지역고유의 전통이나 문화 |
| 사회적 자본 | 규범 | 자원봉사활동 |
| | 네트워크 | 지역사회 단체활동, 지역사회 유대관계, 지역사회 교류정도 |
| | 참여 | 지역사회의 현안에 대한 시민의 참여, 지역의 현안문제 관련 각종 공청회의 활동 수준 |
| | 신뢰 | 신문/TV의 지역 관련 정치정보제공 수준,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주민들과의 협업 |
| 지방행정 서비스 | - | 공무원 업무처리 공정성, 공무원 업무태도·서비스, 민원서비스 간소화 및 편의수준, 전반적 공공행정 서비스 |

인적자본은 보건, 복지, 교육영역으로 보건영역은 지역건강상태, 의료서비스를 측정지표로, 복지영역은 노인서비스, 장애인서비스, 교육지원서비스, 전반적 복지서비스를 측정지표로 교육영역은 공공도서관, 평생교육서비스, 교육환경을 측정지표로 구성하였다. 경제자본은 고용, 지방재정, 지역경제영역으로, 고용은 실업자 지원정책, 개인일자리를 측정지표로, 지방재정은 재정규모, 예산운용을 측정지표로, 전반적 지방경제는 전반적 경제상황, 지역생활비를 측정지표로 구성하였다. 인프라자본은 교통시스템, ICT, 안전영역으로, 교통시스템은 대중교통, 도로상태를 측정지표로, ICT영역은 공공장소의 인터넷 서비스,가 측정지표로, 안전은 자연재해 안전수준, 치안수준, 경찰서비스가 측정지표로 구성되었다. 자연자본은 쓰레기처리서비스, 공기오염도, 공원·녹지공간, 골목과 거리청결이 측정지표로, 주변소음평가 측정지표가 포함되었다. 문화자본은 지역문화 예술활동 수준과 이에 대한 지원, 활동내용을 중심으로 지역단위의 공간구형물이나 문화자산을 중심으로 지표가 구성되었다. 문화활동은 여가생활수준 평가, 주민자치센터 및 경로당 문화 프로그램이 측정지표로, 지역문화자산에는 지역문화공간, 지역문화재, 지역축제, 지역공유의 전통이나 문화 지표가 구성되었다. 사회적 자본은 지역사회활동, 자원봉사활동, 지역사회 유대관계, 지역사회 교류정도, 지역 현안에 대한 시민의 참여, 신문과 TV의 지역 관련 정치정보제공, 지역의 현안문제 관련 각종 공청회의 활동,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주민들과의 협업이 측정지표로 포함되었다. 지방행정서비스는 지역공무원 업무처리 공정성, 지역공무원의 업무태도 및 서비스, 전반적 공공서비스의 지표에 민원서비스 간소화 및 편의수준을 포함하였다. 행정서비스와 주민간의 교류가 빈번해짐에 따라 민원서비스가 지역주민 지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지역주민의 커뮤니티웰빙에 주요요소가 되었기 때문이다.

Ⅲ. 조사방법 및 자료수집

1. 연구설계와 자료 수집

조사도구는 커뮤니티웰빙의 다차원적 모델 조사지이며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TATA 11이 사용되었다. 분석은 조사지 문항의 리커트 10단계 척도로 응답된 개인적 차원의 만족도를 지역자본의 각 요인별 영향력과 전체요인의 영향력이 개인의 사회경제적 개인변인을 통제하고 분석하였다.

〈표 2〉 연구설계

| 구분 | 내용 |
|------|---|
| 독립변수 | - 인적 자본, - 경제 자본, - 문화 자본, - 자연 자본, - 인프라 자본, - 사회적 자본, - 지방행정서비스 |
| 종속변수 | - 지역에서의 전반적인 삶 - 전반적인 지역생활환경 |
| 통제변수 | - 성별, - 혼인상태), - 학력, - 나이, - 소득 |

본 연구자료는 전국단위의 커뮤니티웰빙 조사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27개 시/군/구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모집대상으로 선정하여 전국적으로 수집된 자료이다. 표본크기는 2,723명으로 지표에 따라 응답률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본추출은 2015년 1월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을 수행하였다. 조사표본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1.9\%$ p였다. 연구참여자의 응답은 종이 설문을 이용한 대면면접조사(PI)로 이루어졌으며, 훈련된 경력조사원에 의해 개별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

〈표 3〉 조사개요

| | |
|------|---|
| 모집단 | 전국 27개 시/군/구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
| 표본크기 | 2,723명(각 시/군/구별 100명 내외) |
| 표본추출 | 2015년 1월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
| 표본오차 | 무작위 추출을 전제했을 경우, 조사표본 2,723명의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1.9\%$ p |
| 조사방법 | 종이설문을 이용한 대면면접조사(PI) |
| 조사기간 | 2015년 2월 23일~3월 30일 |

2. 응답자의 특성

응답자의 특성은 성별, 연령, 학력, 거주형태, 근로형태, 결혼상태, 거주형태, 소득이 포함되었으며, 성별은 남성이 1,350명(49.6%), 여성이 1,373명(50.4%)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20대가 432명(15.9%), 30대가 450명(16.5%), 40대가 532명(19.5%), 50대가 552명(20.3%), 60대가 757명(27.8%)이다. 학력은 고등학교 이하가 1,715명(63.0%), 대학교가 980명(36%), 대학원 이상이 28명(1.0%)로 나타났다.

〈표 4〉 응답자의 통계적 특성

| 구 분 | | 빈도수(%) | 구 분 | | 빈도수(%) |
|------|---------|-------------|----------|-------------|-------------|
| 성별 | 남성 | 1,350(49.6) | 거주 형태 | 자가 | 2,061(75.7) |
| | 여성 | 1,373(50.4) | | 전월세 | 622(22.8) |
| 연령 | 20대 | 432(15.9) | | 기타 | 40(1.5) |
| | 30대 | 450(16.5) | 근로 형태 | 임금근로자 | 915(33.6) |
| | 40대 | 532(19.5) | | 고용없는 자영업자 | 896(32.9) |
| | 50대 | 552(20.3) | | 고용있는 자영업자 | 158(5.8) |
| | 60대 이상 | 757(27.8) | | 무급가족 봉사자 | 129(4.7) |
| 학력 | 고등학교 이하 | 1,715(63.0) | | 무응답 | 7(0.3) |
| | 대학교 | 980(36.0) | 비근로자 | 617(22.7) | |
| | 대학원 이상 | 28(1.0) | 소득 | 200만원 미만 | 767(28.2) |
| 결혼상태 | 미혼 | 599(22.0) | | 200-300만원미만 | 502(18.4) |
| | 혼인 | 1,896(69.6) | | 300-400만원미만 | 526(19.3) |
| | 기타 | 228(8.4) | | 400-500만원미만 | 336(12.3) |
| | | | | 500만 원이상 | 586(21.5) |
| | | 무응답 | | 7(0.3) | |

거주형태는 자가 2,061명(75.7%), 전월세가 622명(22.8%), 기타가 40명(1.5%)이었다. 근로형태는 임금근로자가 615명(33.6%), 고용 없는 자영업자가 896명(32.9%), 고용 있는 자영업자가 158명(5.8%), 무급가족종사자가 129명(4.7%)이었으며 70%로 기혼자였다. 지역별 소재지는 서울(505명), 부산(100명), 대구(100명), 인천(100명), 광주(104명), 대전(100명), 울산(100명), 경기(204명), 강원(207명), 충북(200명), 충남(200명), 전북(202명), 전남(201명), 경북(200명), 경남(200명)으로서 전체 2,723명이 포함되었다.

IV. 분석결과

1. 광역자치단체의 커뮤니티웰빙

광역자치단체의 커뮤니티웰빙은 개인차원의 주관적 생활만족도와 지역생활환경에 대한 객관적 평가로 분석되었다. 동일 지표에 대한 주관적 객관적 차원의 측정은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커뮤니티웰빙의 수준은 두 가지 측정을 모두 반영한 것이다.

1) 지역생활만족도

광역자치단체 생활만족도는 지역의 자원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표 5〉참조). 세부적으로 인적자본 가운데 공공도서관이 개인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반면, 의료 및 각종 복지서비스의 경우는 차이를 드러내지 않았다. 경제자본은 지역경제의 전반적 상황이 개인의 생활만족도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실업자 지원정책, 일자리 수준, 재정규모, 지역에 납부하는 세금 및 지역거주에 소요되는 생활비는 개인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문화자본의 경우 여가수준, 지역축제, 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가 유의미하였으며 자연자본의 경우 모든 지표가 커뮤니티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뮤니티웰빙의 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많은 것은 자연자본에 이어 인프라자본으로 대중교통, 공공장소에서의 인프라이용성, 치안과 경찰서비스 지표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자본은 자원봉사활동은 영향을 주고 있지만 지역에서의 단체활동이나 시민참여 지표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5〉 지역생활만족도

| 변수명 | | Coef. | Std. Err. | t | sig. | 변수명 | | Coef. | Std. Err. | t | sig. |
|------|-----------------------|--------|-----------|-------|---------|------------------------------------|------------------------------|------------|-----------|---------|---------|
| 인적자본 | 건강상태 | 0.014 | 0.012 | 1.17 | 0.241 | 인프라자본 | 대중교통 | 0.080 | 0.010 | 7.64 | 0.000** |
| | 의료서비스 | 0.016 | 0.009 | 1.69 | 0.092 | | 도로 상태 | 0.013 | 0.009 | 1.42 | 0.155 |
| | 노인서비스 | 0.004 | 0.012 | 0.38 | 0.703 | | 무료 인터넷 이용 공공장소 | 0.043 | 0.010 | 4 | 0.000** |
| | 장애인서비스 | -0.005 | 0.006 | -0.79 | 0.432 | | 자연재해 대비 | -0.007 | 0.005 | -1.29 | 0.197 |
| | 보육서비스 | 0.002 | 0.005 | 0.47 | 0.640 | | 치안 | 0.071 | 0.020 | 3.52 | 0.000** |
| | 전반적 복지서비스 | 0.006 | 0.007 | 0.85 | 0.397 | | 경찰서비스 | -0.100 | 0.021 | -4.73 | 0.000** |
| | 공공도서관 | 0.019 | 0.008 | 2.31 | 0.021* | 사회자본 | 자원봉사활동 | 0.034 | 0.014 | 2.29 | 0.022* |
| | 평생교육서비스 | 0.002 | 0.008 | 0.23 | 0.816 | | 지역사회 단체활동 | 0.010 | 0.008 | 1.28 | 0.200 |
| | 교육환경 | 0.000 | 0.005 | 0.13 | 0.899 | | 지역사회 유대관계 | 0.063 | 0.014 | 4.44 | 0.000** |
| 경제자본 | 실업자 지원정책 | 0.003 | 0.009 | 0.35 | 0.728 | | 지역사회 교류정도 | 0.027 | 0.022 | 1.24 | 0.215 |
| | 일자리 수준 | 0.007 | 0.009 | 0.77 | 0.441 | | 지역사회의 현안에 대한 시민의 참여 | 0.005 | 0.013 | 0.42 | 0.673 |
| | 재정규모 | 0.014 | 0.018 | 0.77 | 0.440 | | 신문/TV의 지역관련 정치정보 제공 수준 | 0.008 | 0.009 | 0.85 | 0.395 |
| | 지역에 납부하는 세금규모 | 0.001 | 0.007 | 0.23 | 0.816 | 지역의 현안문제 관련 각종 공청회의 활동 수준 | | -0.020 | 0.012 | -1.63 | 0.104 |
| | 전반적 지역경제 상황 | 0.058 | 0.012 | 4.7 | 0.000**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들과의 협업 | 0.058 | 0.012 | 4.56 | 0.000** | |
| | 지역 거주에 소요되는 생활비 | -0.001 | 0.008 | -0.23 | 0.816 | 지방행정 서비스 | 공무원 업무처리 공정성 | 0.261 | 0.021 | 12.14 | 0.000** |
| 문화자본 | 여가생활수준 | 0.065 | 0.015 | 4.32 | 0.000** | | 공무원 업무태도·서비스 | -0.159 | 0.022 | -7.11 | 0.000** |
| | 주민자치센터/ 경로당 | 0.008 | 0.016 | 0.55 | 0.584 | | 민원서비스 간소화 및 편의수준 | -0.003 | 0.012 | -0.26 | 0.792 |
| | 문화프로그램 | 0.010 | 0.010 | 0.96 | 0.338 | | 전반적 공공서비스 | 0.003 | 0.009 | 0.31 | 0.758 |
| | 지역문화재 | 0.007 | 0.009 | 0.77 | 0.438 | 성별 | 0.072 | 0.061 | 1.19 | 0.236 | |
| | 지역축제 | -0.038 | 0.011 | -3.41 | 0.001** | 나이 | 0.006 | 0.003 | 1.86 | 0.063 | |
| | 지역 고유의 전통이나 문화 | 0.050 | 0.012 | 4.17 | 0.000** | 혼인 상태 | 기혼 | -0.204 | 0.100 | -2.03 | 0.042* |
| 자연자본 | 재활용 및 쓰레기수거 서비스 | 0.037 | 0.009 | 3.91 | 0.000** | | 이혼, 별거, 사별 | 이혼, 별거, 사별 | -0.261 | 0.157 | -1.66 |
| | 공기오염도 | 0.037 | 0.011 | 3.19 | 0.001** | 학력 | | 중학교 졸업 | 0.021 | 0.118 | 0.18 |
| | 공원·녹지 공간 | 0.126 | 0.016 | 7.78 | 0.000** | | 고등학교 졸업 | -0.148 | 0.111 | -1.33 | 0.184 |
| | 골목과 거리의 청결도 | 0.039 | 0.012 | 3.2 | 0.001** | | 전문대학 및 대학교 졸업 | -0.229 | 0.120 | -1.9 | 0.058 |
| | 주변 소음 정도 | 0.050 | 0.011 | 4.51 | 0.000** | | 대학원 이상 | -0.357 | 0.250 | -1.43 | 0.154 |
| | | | | | | | 소득 | 0.000 | 0.000 | 5.16 | 0.000** |
| | | | | | | 상수항 | 0.379 | 0.243 | 1.56 | 0.118 | |
| | | | | | | N | | 2593 | | | |
| | | | | | | R-squared | | 0.666 | | | |
| | | | | | | Adj R-squared | | 0.659 | | | |
| | | | | | | Prob > F | | 0.000 | | | |

주: * p < 0.05, ** p < 0.01

2) 지역생활환경 평가

지역생활환경의 평가는 커뮤니티웰빙의 객관적 평가로 간주간적 조사의 중요한 부분이다. 광역자치단체의 지역환경평가 결과는 다음의 <표 6>에 제시되고 있다.

<표 6> 지역환경평가

| 변수명 | | Coef. | Std. Err. | t | sig. | 변수명 | | Coef. | Std. Err. | t | sig. |
|------|-------------------|--------|-----------|-------|---------|---------------------------|------------------|--------|-----------|---------|---------|
| 인적자본 | 건강상태 | 0.031 | 0.025 | 1.21 | 0.225 | 인프라자본 | 대중교통 | 0.094 | 0.021 | 4.39 | 0.000** |
| | 의료서비스 | 0.017 | 0.019 | 0.91 | 0.363 | | 도로 상태 | 0.034 | 0.019 | 1.78 | 0.076 |
| | 노인서비스 | 0.040 | 0.024 | 1.66 | 0.097 | | 무료 인터넷 이용 공공장소 | 0.059 | 0.021 | 2.71 | 0.007** |
| | 장애인서비스 | -0.001 | 0.013 | -0.09 | 0.926 | | 자연재해 대비 | -0.005 | 0.011 | -0.47 | 0.642 |
| | 보육서비스 | 0.005 | 0.012 | 0.47 | 0.64 | | 치안 | -0.151 | 0.041 | -3.66 | 0.000** |
| | 전반적 복지서비스 | 0.007 | 0.014 | 0.55 | 0.58 | | 경찰서비스 | 0.168 | 0.043 | 3.92 | 0.000** |
| | 공공도서관 | 0.032 | 0.017 | 1.85 | 0.065 | | 자원봉사활동 | 0.010 | 0.030 | 0.33 | 0.741 |
| | 평생교육서비스 | -0.011 | 0.018 | -0.65 | 0.514 | | 지역사회 단체활동 | 0.011 | 0.016 | 0.69 | 0.493 |
| | 교육환경 | 0.004 | 0.012 | 0.38 | 0.702 | 지역사회 유대관계 | -0.030 | 0.029 | -1.03 | 0.303 | |
| 경제자본 | 실업자 지원정책 | 0.025 | 0.019 | 1.3 | 0.192 | 지역사회 교류정도 | 0.130 | 0.044 | 2.92 | 0.004** | |
| | 일자리 수준 | 0.048 | 0.019 | 2.44 | 0.015* | 지역사회의 현안에 대한 시민의 참여 | 0.032 | 0.026 | 1.21 | 0.227 | |
| | 재정규모 | -0.105 | 0.037 | -2.79 | 0.005** | 신문/TV의 지역관련 정치정보 제공 수준 | -0.007 | 0.020 | -0.39 | 0.695 | |
| | 지역에 납부하는 세금규모 | 0.006 | 0.015 | 0.46 | 0.642 | 지역의 현안문제 관련 각종 공청회의 활동 수준 | -0.013 | 0.026 | -0.53 | 0.597 | |
| | 전반적 지역경제 상황 | 0.051 | 0.025 | 2.04 | 0.041*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들과의 협업 | 0.033 | 0.026 | 1.28 | 0.202 | |
| | 지역 거주에 소요되는 생활비 | -0.017 | 0.016 | -1.05 | 0.294 | 지방행정서비스 | 공무원 업무처리 공정성 | 0.004 | 0.043 | 0.1 | 0.923 |
| 문화자본 | 여가생활수준 | -0.107 | 0.030 | -3.48 | 0.001** | | 공무원 업무태도·서비스 | 0.069 | 0.045 | 1.52 | 0.128 |
| | 주민자치센터/경로당 문화프로그램 | 0.123 | 0.032 | 3.77 | 0.000** | | 민원서비스 간소화 및 편의수준 | -0.002 | 0.025 | -0.11 | 0.913 |
| | 지역문화공간 | 0.011 | 0.021 | 0.53 | 0.597 | | 전반적 공공서비스 | 0.018 | 0.020 | 0.93 | 0.352 |
| | 지역문화재 | -0.002 | 0.020 | -0.14 | 0.892 | | 성별 | -0.114 | 0.124 | -0.92 | 0.356 |
| | 지역축제 | 0.013 | 0.022 | 0.61 | 0.54 | | 나이 | 0.006 | 0.006 | 0.9 | 0.369 |
| | 지역 고유의 전통이나 문화 | 0.063 | 0.024 | 2.59 | 0.01* | 혼인상태 | 기혼 | -0.044 | 0.204 | -0.22 | 0.828 |
| | | | | | | 이혼, 별거, 사별 | 0.192 | 0.320 | 0.6 | 0.549 | |

| 변수명 | | Coef. | Std. Err. | t | sig. | 변수명 | | Coef. | Std. Err. | t | sig. |
|------|-----------------|-------|-----------|------|---------|---------------|---------------|--------|-----------|-------|-------|
| 자연자본 | 재활용 및 쓰레기수거 서비스 | 0.020 | 0.019 | 1.03 | 0.303 | 학력 | 중학교 졸업 | -0.212 | 0.240 | -0.88 | 0.376 |
| | 공기오염도 | 0.052 | 0.023 | 2.2 | 0.028* | | 고등학교 졸업 | -0.097 | 0.226 | -0.43 | 0.666 |
| | 공원·녹지 공간 | 0.099 | 0.033 | 3.02 | 0.003** | | 전문대학 및 대학교 졸업 | -0.262 | 0.245 | -1.07 | 0.285 |
| | 골목과 거리의 청결도 | 0.102 | 0.025 | 4.05 | 0.000** | | 대학원 이상 | -0.466 | 0.508 | -0.92 | 0.359 |
| | 주변 소음 정도 | 0.078 | 0.022 | 3.44 | 0.001** | 소득 | 0.000 | 0.000 | 1.79 | 0.074 | |
| | | | | | | 상수항 | -0.295 | 0.493 | -0.6 | 0.55 | |
| | | | | | | N | | 2593 | | | |
| | | | | | | R-squared | | 0.464 | | | |
| | | | | | | Adj R-squared | | 0.452 | | | |
| | | | | | | Prob > F | | 0.000 | | | |

주: * $p < 0.05$, ** $p < 0.01$

구체적으로 인적자본의 경우 모든 지표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자본의 경우 일자리수준, 재정규모 및 전반적이지역의 경제상황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문화자본은 여가생활수준, 주민자치단체 및 경로당 문화프로그램, 지역의 고유전통과 문화가 영향을 미치는 지표로 나타났으며 자연자본의 경우 쓰레기 수거 서비스를 제외한 모두 지표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인프라자본은 지역환경평가에서 중요한 지표로 대중교통, 공공장소에서의 무료인터넷이용, 치안과 경찰서비스가 중요한 지표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사회적 자본은 지역환경평가영역에서 지역사회의 교류를 제외한 모든 지표가 커뮤니티웰빙에 유의미한 결과를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생활의 개인만족도와 지역환경에 대한 평가는 광역자치단체들간에 다른 수준을 나타냈으며 다음에서는 지역자본에 따라 비교하였다.

2.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자본 비교

커뮤니티웰빙은 제주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의 평균을 비교하였다. 커뮤니티웰빙 지수가 가장 높은 광역자치단체는 충북(6.40), 충남(6.39), 인천(6.33)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광역자치단체의 60%가 리커트척도 6점 이상의 평균을 보이고 있는 반면 강원도의 경우 4.95로 낮은 생활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충남, 충북, 인천, 경기, 경남은 서울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6개 자본 유형으로 보면, 자연자본이 가장 높고(6.786점) 다음으로 인프라자본에 만족도가 크다(6.622). 반면 평균적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는 자본은 경제자본이고(5.377점), 다음으로 문화자본에 대해서 불만족도가 크다(5.788점).

1) 지역자본의 광역자치단체간 차이

6개 지역자본에 대한 개별 광역자치단체간의 차이를 비교하면, <표 7>에서 보듯이 광역정부별 자본유형 순위는 도시화 정도에 따라 다르다. 서울특별시는 인터넷 등 인프라환경이 우수하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였으며 인프라자본에 대한 만족과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인적자본 만족도가 큰 인천광역시와 자연자본 만족도가 높은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광역시에서 인프라자본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시군 지역을 관할하는 도는 대체로 자연환경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가장 높은데, 충청남도는 사회적 자본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표 7> 광역정부별 6개 자본 비교

| | 자본 유형 | | | | | | 자본 전체 |
|-------|------------------|------------------|------------------|------------------|------------------|------------------|------------------|
| | 인적자본 | 경제자본 | 문화자본 | 자연자본 | 인프라 자본 | 사회적 자본 | |
| 전 체 | 6.207 (3.010) | 5.377 (4.164) | 5.788 (4.110) | 6.786 (3.855) | 6.622 (4.235) | 6.047 (3.629) | 6.138 (3.026) |
| 서울특별시 | 6.847 (3.371) | 6.132 (7.705) | 6.625 (7.817) | 6.909 (7.404) | 7.951 (8.466) | 6.578 (7.560) | 6.840 (6.193) |
| 부산광역시 | 5.813 (1.737) | 5.050 (1.799) | 5.712 (3.357) | 6.344 (3.037) | 6.495 (3.260) | 5.828 (2.119) | 5.874 (1.447) |
| 대구광역시 | 5.492 (1.310) | 4.845 (1.367) | 5.113 (1.641) | 5.472 (1.791) | 5.968 (1.628) | 5.431 (1.678) | 5.387 (1.361) |
| 인천광역시 | 7.078 (2.489) | 5.805 (2.305) | 5.592 (1.686) | 6.634 (1.697) | 6.597 (1.583) | 6.418 (2.718) | 6.354 (1.413) |
| 광주광역시 | 6.364 (1.238) | 5.019 (1.485) | 4.907 (1.467) | 6.471 (1.584) | 6.441 (1.310) | 5.304 (1.613) | 5.751 (0.979) |
| 대전광역시 | 5.920 (1.614) | 5.202 (1.286) | 5.242 (1.298) | 6.076 (1.400) | 6.397 (2.525) | 5.306 (1.274) | 5.690 (1.137) |
| 울산광역시 | 6.314 (3.188) | 6.115 (3.590) | 5.652 (1.308) | 6.522 (2.055) | 6.060 (2.174) | 5.811 (2.467) | 6.079 (1.379) |
| 경기도 | 6.939 (3.933) | 5.386 (1.657) | 5.576 (2.498) | 7.317 (3.759) | 7.133 (4.187) | 5.930 (1.270) | 6.380 (1.705) |
| 강원도 | 5.024 (1.561) | 4.236 (1.947) | 4.324 (1.961) | 5.734 (2.268) | 5.216 (1.490) | 4.928 (1.586) | 4.910 (1.357) |
| 충청북도 | 6.246 (1.329) | 5.718 (1.792) | 6.319 (1.273) | 7.147 (1.258) | 6.498 (1.610) | 6.408 (1.571) | 6.389 (1.058) |
| 충청남도 | 6.228 (2.763) | 5.700 (1.314) | 5.651 (1.960) | 6.656 (1.753) | 6.678 (2.209) | 6.759 (1.503) | 6.278 (1.318) |
| 전라북도 | 6.042 (2.336) | 4.719 (2.486) | 6.110 (5.473) | 6.644 (2.448) | 6.420 (1.798) | 6.165 (1.665) | 6.016 (1.725) |
| 전라남도 | 6.148 (1.805) | 5.002 (1.550) | 5.240 (2.365) | 7.241 (3.285) | 5.869 (1.380) | 5.755 (1.665) | 5.876 (1.309) |
| 경상북도 | 5.092 (1.821) | 4.724 (1.678) | 5.787 (2.132) | 7.307 (1.433) | 6.106 (1.864) | 6.189 (1.579) | 5.867 (1.191) |

| | 자본 유형 | | | | | | 자본 전체 |
|---------------|------------------|------------------|------------------|------------------|------------------|------------------|------------------|
| | 인적자본 | 경제자본 | 문화자본 | 자연자본 | 인프라 자본 | 사회적 자본 | |
| 경상남도 | 6.483 (6.133) | 5.794 (6.729) | 6.504 (1.678) | 7.568 (2.252) | 6.641 (2.248) | 6.053 (1.459) | 6.507 (2.323) |
| 평균 비교 (F값) | 8.43*** | 4.40*** | 5.24*** | 3.94*** | 6.63*** | 4.02*** | 6.0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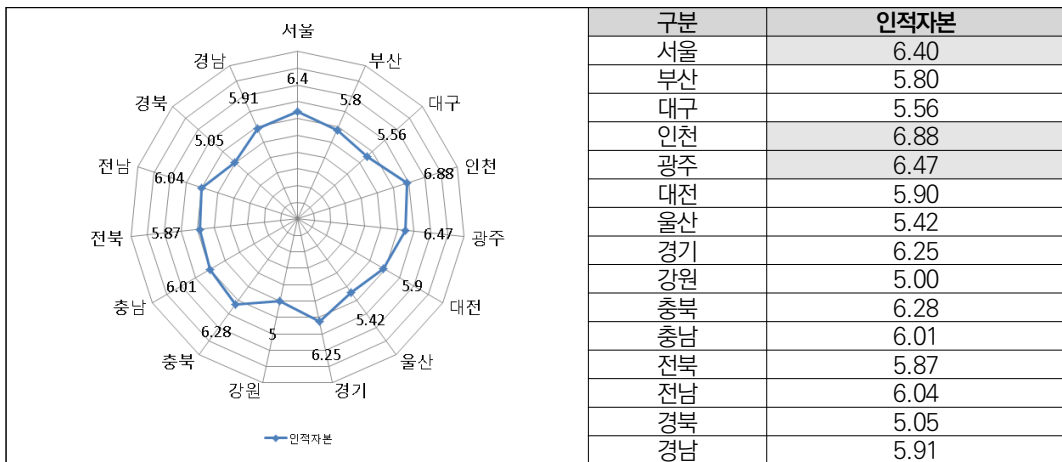
주) 지역에 대한 만족도 척도는 매우 불만족(1) ~ 매우 만족(10)임
 F값은 15개 광역정부 간 세부 자본 유형의 평균이 차별적인지 나타내는 것이며,
 ***:p<0.001, **:p<0.05, *:p<0.1임,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도시화 정도에 따라 자본 만족도 경향성이 있지만, 세부 자본 유형별 광역정부 점수 차이는 크다. <표 8>에서 보면 6개 자본 유형 모두 광역정부별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다르다. 구체적으로 인적자본은 인천광역시가 가장 높는데(7.078점), 다른 광역정부 인적자본이 인천광역시와 비교해서 상당히 격차가 나는 점수를 보였다(F값=8.43). 나머지 5개 자본들도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광역정부별 점수가 다르다고 해석 가능하다. 경제자본문화자본인프라자본은 서울특별시, 자연자본은 경상남도, 사회적 자본은 충청남도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른 광역정부와 평균점수가 차별적이고 통계적으로 지지를 받는다(F값: 경제자본=4.40, 문화자본=5.24, 자연자본=3.94, 인프라자본=6.63, 사회적 자본=4.02).

2) 인적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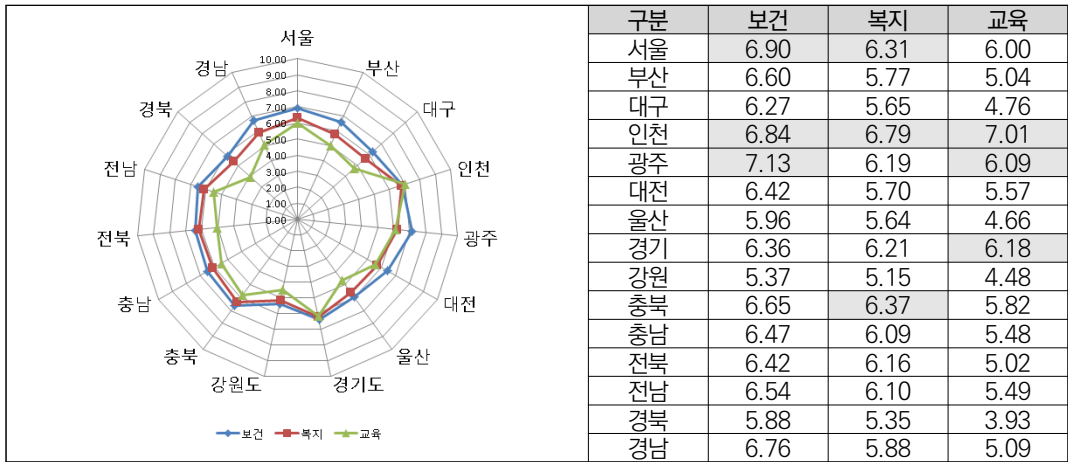
인적자본의 광역자치단체별 수준은 다음의 <그림 1>와 같이 나타났다. 인적자본의 경우 인천(6.88), 광주(6.47), 서울(6.40)이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강원(5.00)이 가장 낮고 이어 경북(5.05)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1> 인적자본의 광역자치단체별 수준



인적자본의 세부 지표별로 높은 수준을 살펴보면 <그림 2>과 같다. 보건지표는 광주(7.13), 서울(6.9), 인천(6.84), 복지지표는 인천(6.79), 충북(6.37), 서울(6.31)이, 교육지표는 인천(7.01), 경기(6.18), 광주(6.09)가 높게 나타났다. 인천은 인적자본의 각 지표에서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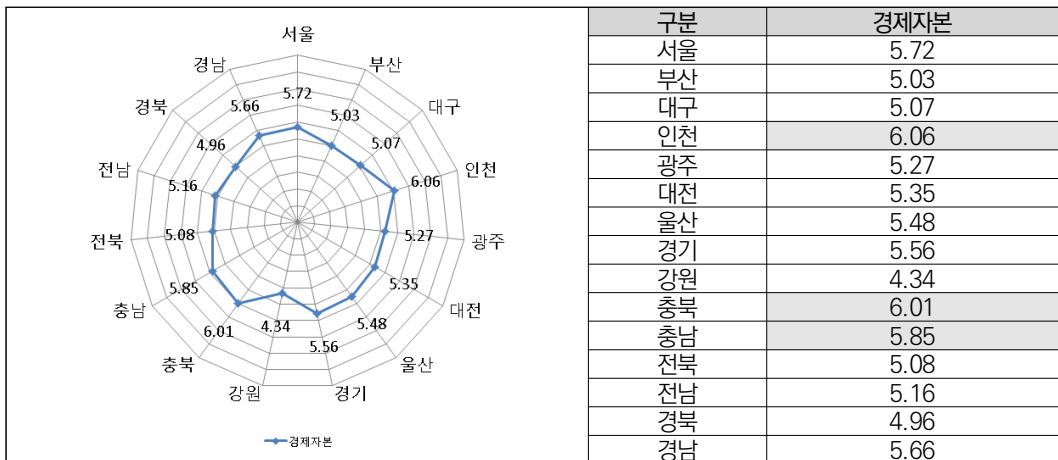
<그림 2> 인적자본 하위 항목의 광역자치단체별 수준



3) 경제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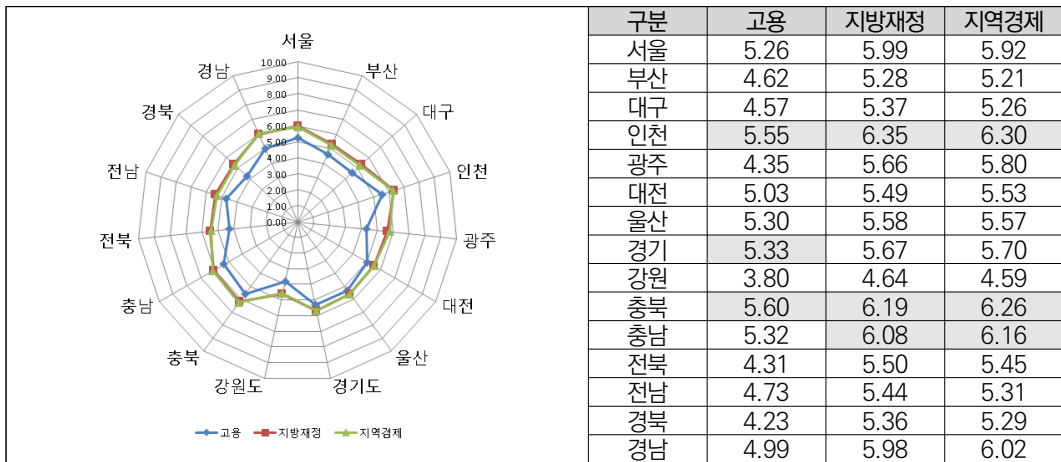
경제자본의 광역자치단체별 수준은 <그림 3>와 같다. 경제자본의 경우 인천(6.06), 충북(6.01), 충남(5.85)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강원(4.34)이 가장 낮고 이어 경북(4.96)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 경제자본의 광역자치단체별 수준



경제자본의 하위 항목을 측정해보면 모든 지표에서 인천이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각 지표별로 살펴보면 고용지표는 충북(5.60), 인천(5.55), 경기(5.60)의 순으로, 지방재정지표는 인천(6.35), 충북(6.19), 충남(6.08)의 순으로, 지역경제지표는 인천(6.30), 충북(6.26), 충남(6.16)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4>는 광역자치단체별 경제자본 지표의 수준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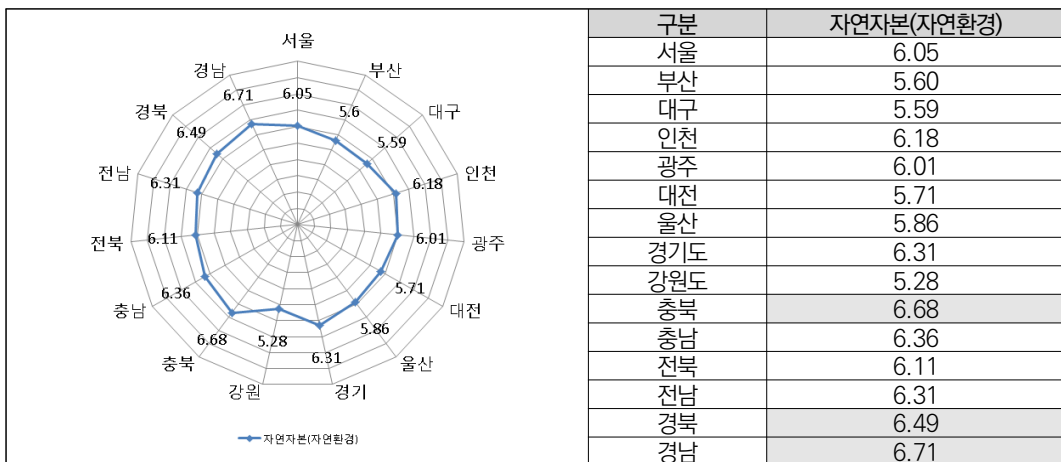
<그림 4> 경제자본 하위 항목의 광역자치단체별 수준



4) 자연자본

자연자본 지표에서 경남은 비교적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자연환경지표의 경우 1위가 경남(6.71), 2위가 충북(6.68), 3위가 경북(6.49)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5>은 광역자치단체별 자연자본(자연환경지표)의 수준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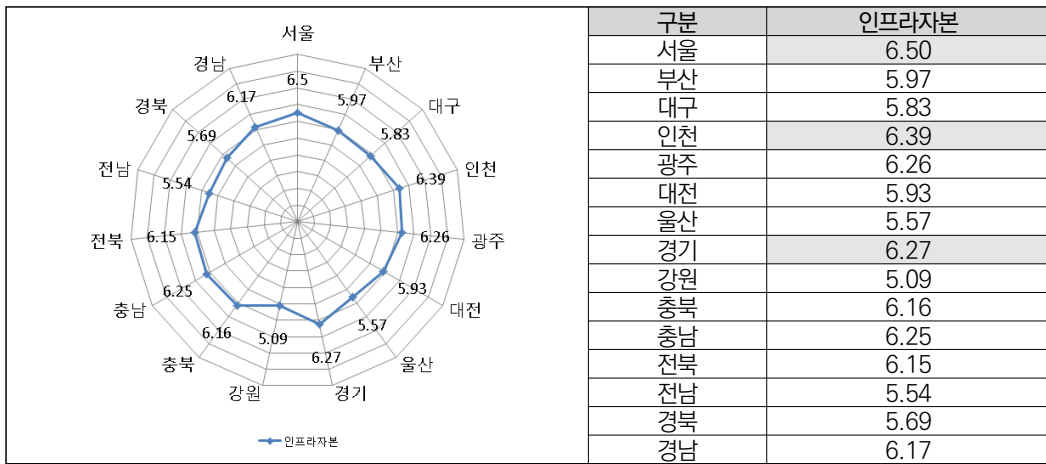
<그림 5> 자연자본의 광역자치단체별 수준



5) 인프라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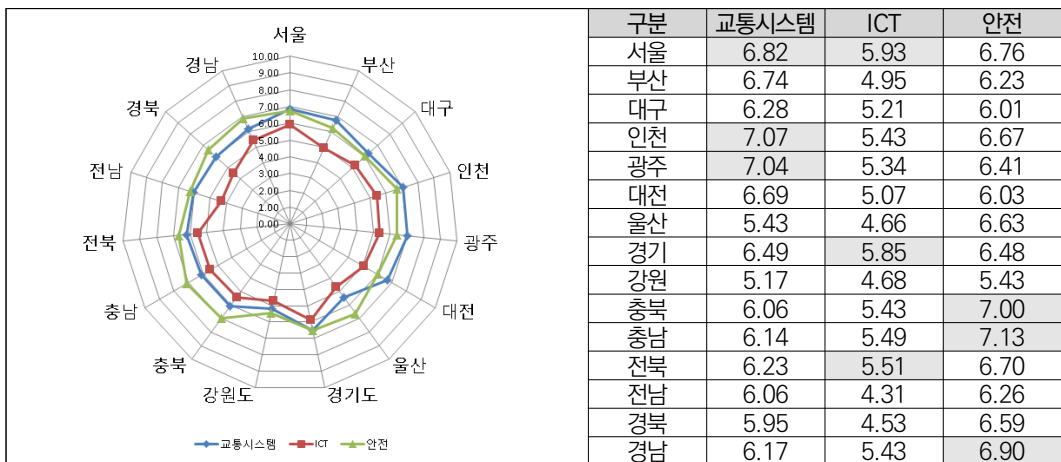
광역자치단체의 인프라자본은 서울(6.50), 인천(6.39), 경기(6.27)가 높은 수준으로 드러났으며 강원(5.09) 과 전남(5.54)이 낮게 나타났다(<그림 6>참조).

<그림 6> 인프라자본의 광역자치단체별 수준



인프라자본의 세부 지표는 서울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그림 7>). 교통시스템지표의 경우 1위가 인천(7.07), 2위가 광주(7.04), 3위가 서울(6.82)으로 확인되었다. ICT지표의 경우 서울(5.93), 경기(5.85), 전북(5.51)의 순으로, 안전지표의 경우 충남(7.13), 충북(7.00), 경남(6.90)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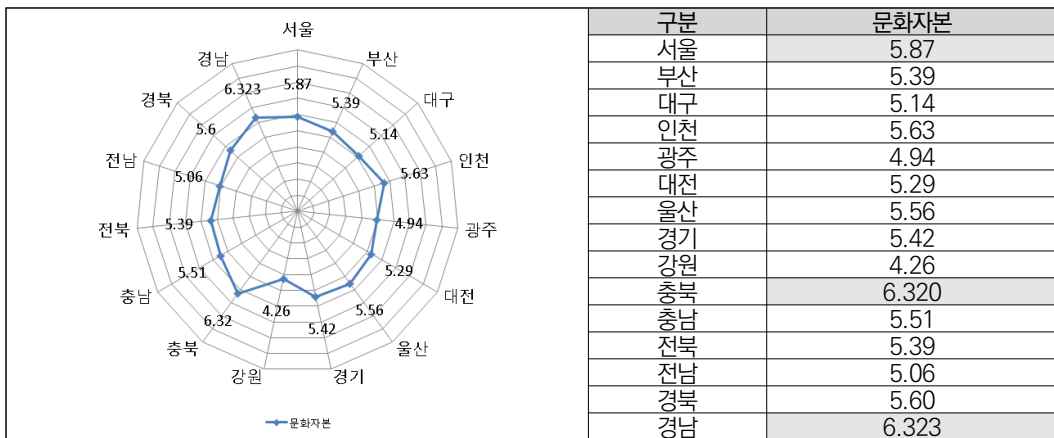
<그림 7> 인프라자본 하위 항목의 광역자치단체별 수준



6) 문화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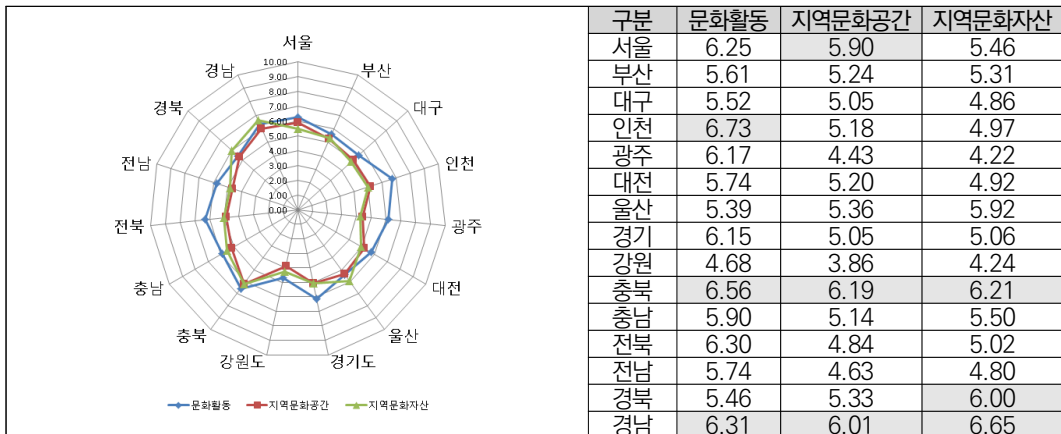
문화자본의 경남(6.323), 충북(6.320)로 경남과 충북이 최상위의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어 서울(5.87)로 나타났고 강원(4.26), 광주(4.94)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문화자본의 광역자치단체별 진단결과는 <그림 8>과 같다.

<그림 8> 문화자본의 광역자치단체별 수준



문화자본과 각 지표 모두에서 경남은 비교적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각 지표별로 높은 수준을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9>과 같다. 문화활동지표의 경우 1위가 인천(7.13), 2위가 충북(6.59), 3위가 경남(6.31)으로 확인되었다. 지역문화공간지표의 경우 1위가 충북(6.19), 2위가 경남(6.01), 3위가 서울(5.90)로 확인되었다. 지역문화자산지표의 경우 1위가 경남(6.65), 2위가 충북(6.21), 3위가 경북(6.00)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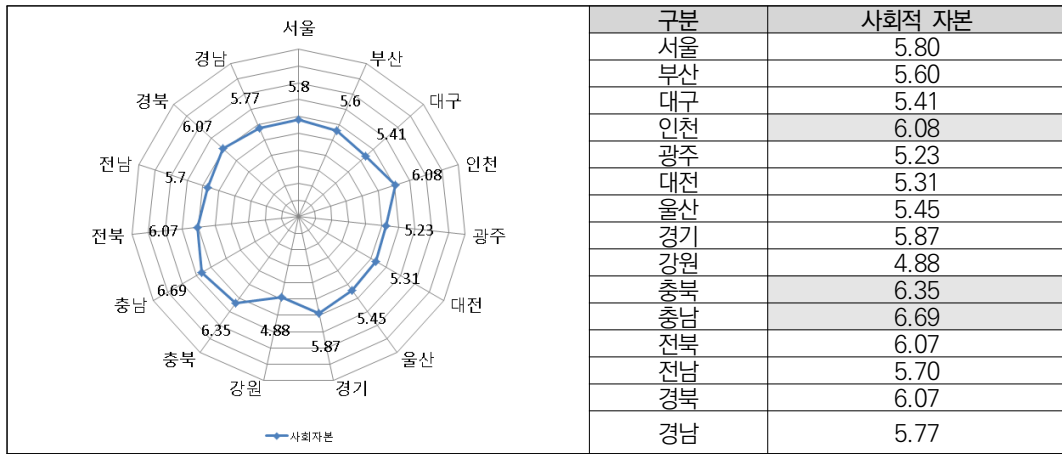
<그림 9> 문화자본 하위 항목의 광역자치단체별 수준



7) 사회적 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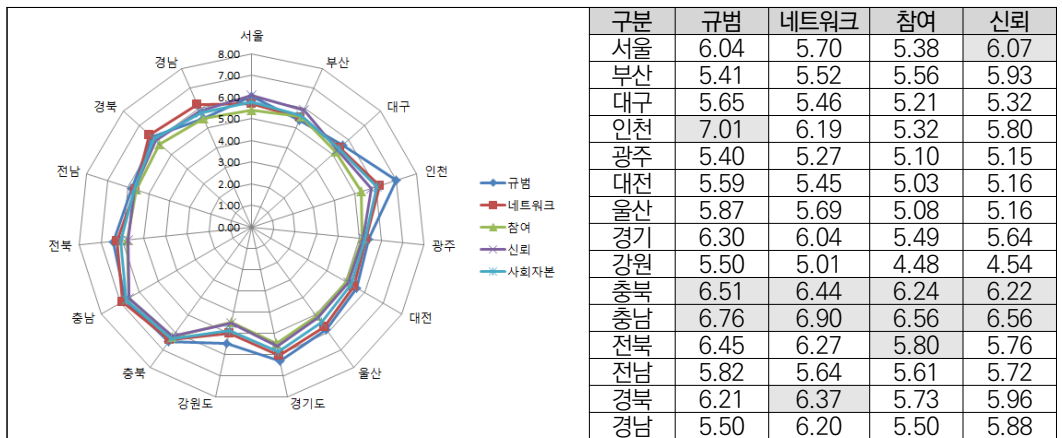
사회적 자본의 경우 충남(6.69), 충북(6.35), 인천(6.08)이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강원(4.88), 대전(5.31)로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자본의 광역자치단체별 진단결과는 <그림 10>과 같다.

<그림 10> 사회적 자본의 광역자치단체별 수준



사회적 자본과 세부 지표는 충남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 각 지표별 수준은 다음<그림 11>와 같다. 규범지표의 경우 인천(7.01), 충남(6.76), 충북(6.51) 순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지표의 경우 충남(6.90), 충북(6.44), 경북(6.37)으로, 참여지표는 충남(6.56), 충북(6.24), 전북(5.80) 순으로 확인되었다. 신뢰지표의 충남(6.56), 충북(6.22), 서울(6.07)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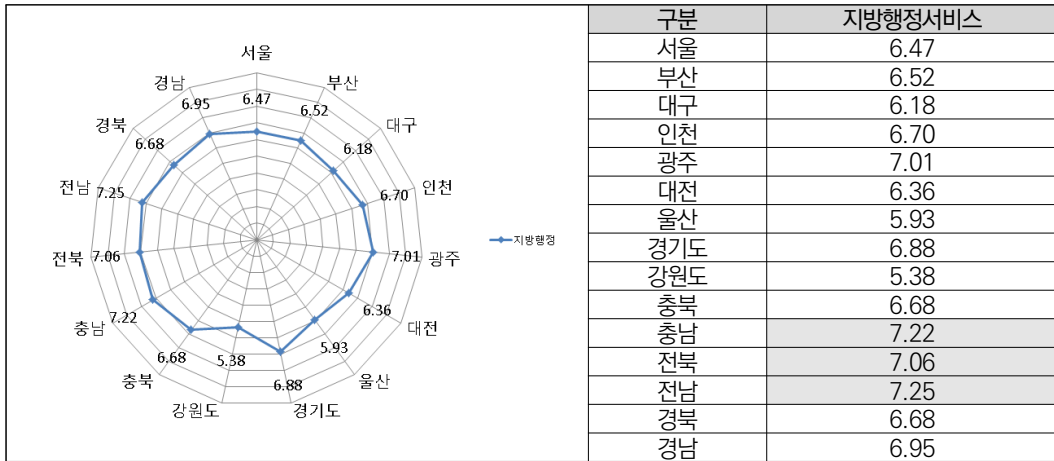
<그림 11> 사회적 자본 하위 항목의 광역자치단체별 수준



8) 지방행정서비스

지방행정서비스지표에서 전남은 비교적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지방행정서비스 지표의 경우 전남(7.25), 충남(7.22), 전북(7.06)이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으며 강원(5.38), 울산(5.93)으로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12>은 광역자치단체별 지방행정서비스지표의 수준을 나타낸다.

<그림 12> 지방행정서비스의 광역자치단체별 수준



V. 결론 및 제언

커뮤니티웰빙 측정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충북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인천과 충남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광역자치단체들은 커뮤니티웰빙을 측정하는 여러 지표에서 최고의 수준을 나타내거나 상위권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6개 자본 유형으로 보면, 자연자본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인프라자본에 만족도가 높은 반면 경제자본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며 다음으로 문화자본에 대해서 불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별 자본유형 순위는 도시화 정도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서울특별시는 인프라자본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경기도는 자연자본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크다. 서울특별시는 대도시로서 인터넷 등 인프라환경이 우수하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경기도의 시군 지역 주민들은 대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자연환경이 더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향은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인적자본 만족도가 큰 인천광역시와 자연자본 만족도가 높은 광주광역시를 제외하면, 상당수 광역시에서 인프라자본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시군 지역을 관찰하는 도는 대체로 자연환경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가장 높는데, 충청남도만 사회적 자본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일부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대도시에서는 인프라자본, 그리고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에서는 자연환경에 대한 평가 점수가 높다. 그리고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에서는 자연환경에 대한 평가 점수가 높다.

도시화 정도에 따라 자본 만족도 경향성이 있지만, 세부 자본 유형별 광역정부 점수 차이는 크다. 여섯 자기 자본 유형 모두 광역정부별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다르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인적자본은 인천광역시가 가장 높았고 다른 광역정부 인적자본이 인천광역시와 비교해서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뿐 만 아니라 그 외 지역 자본들도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광역정부별 차이가 나타났으며 경제자본-문화자본-인프라자본은 서울특별시, 자연자본은 경상남도, 사회적 자본은 충청남도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른 광역정부와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냈다. 충청권의 충남과 충북, 그리고 인천이 각 지역자본영역에서 공통적으로 상위권을 나타내어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각 자본 지표에서 인천은 인적자본, 경제자본의 2개 영역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경남이 자연자본, 문화자본의 2개 영역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충남은 사회적 자본 영역에서 두드러졌으며, 서울은 인프라자본 영역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분석결과 상위권의 특징처럼 하위수준을 드러내는 자치단체의 경우도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전반적인 커뮤니티웰빙 수준과 함께 각 지역자본에 따른 광역자치단체간의

차이도 드러났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적자본의 경우 개인의 생활만족도 부분에서는 공공도서관 지표가 유의미하였지만, 생활환경평가 부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내는 지표가 측정되지 않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적자본의 경우 자치단체에 따른 생활만족도와 환경평가에서 차이가 없는 것은 자치단체에 의해 인적자본영역의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고 있으며, 다른 면으로 인적자본 지표의 경우 복지서비스와 교육서비스영역을 포괄하고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잘 이루어져 광역자치단체들간에 비교적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서비스의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경제자본은 지역경제의 전반적 상황지표를 제외한 다른 지표들은 커뮤니티웰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으나 지역의 환경평가부분에서는 일자리 수준, 재정규모 및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상황지표는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경제자본의 지표 가운데 지역에 납부하는 세금 및 지역거주에 소요되는 생활비가 개인의 만족도와 생활환경평가에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점은 개인의 문제로 간주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이슈로 간주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제기된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원인은 후속연구를 통해 분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문화자본은 여가생활, 지역의 전통과 문화가 커뮤니티웰빙의 수준에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의 만족도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주민센터와 지역경로당의 교육프로그램이 영향을 미치는 지표로 드러났다. 이는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주민대상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지역의 문화자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자치단체들이 지역주민들의 교육서비스가 각종 여가활동과 인문교양증진을 위한 강좌 및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것은 이런 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넷째, 자연자본은 커뮤니티웰빙의 모든 측정지표에서 유의미한 결과로 측정되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연자본의 지표로서 지역의 쓰레기수거, 공기오염도, 공원과 녹지공간, 거리청결도 및 소음의 지표가 개인의 생활만족도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 결과는 환경평가에서 쓰레기수거를 제외한 지표들에 동일한 결과를 드러냈다. 이런 결과는 지역생활에서 쓰레기수거 및 재활용이 자치단체의 고유한 서비스로 간주되기 보다는 전국적으로 제공되는 일률적 서비스로 인식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인프라자본은 개인의 생활만족도에서는 자연자본에 이어 두 번째로 의미가 있는 것이었으나 지역생활환경평가에서는 가장 의미 있는 자본으로 나타났다. 지역생활에 대한 개인의 만족도가 주관적인 반면 지역생활환경에 대한 평가는 자신의 거주지역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전히 지역의 인프라는 그 지역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가 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여섯째, 사회적 자본은 개인의 생활만족도와 지역의 환경평가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낸 부분이다. 개인의 만족도 부분에서 지역사회의 유대관계와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지역주민간의 협업지표가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역환경의 평가에서는 지역주민간 협업만이 유의미한 지표로 드러났다. 사회적 자본의 지표들이 지역환경평가에서 의미있게 인식되지 않은 것은 인프라자본과 자연자본이 영향력을 갖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나타났다.

커뮤니티웰빙 측정결과 이상과 같은 특이점들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광역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책결정을 하는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커뮤니티웰빙의 수준이 높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차이는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인적자본이 전체적으로 커뮤니티웰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자연자본의 경우 커뮤니티웰빙의 주관적 차원의 개인만족도와 객관적 차원의 지역환경평가에서 모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유의미한 자본으로 나타난 점이다. 이런 결과는 지역생활에서 주민들이 감지하는 공기오염도, 거리청결도, 공원녹지공간 및 소음등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치단체들이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관심을 두어야 하고 행정서비스 전달과정에 이런 점들이 주민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커뮤니티웰빙의 수준이 광역자치단체간 차이를 드러내는 것은 각 지역의 환경적 여건과 조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각 자치단체들은 독자적인 커뮤니티웰빙의 수준의 측정과 결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예컨대 강원도의 경우 제주에 이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드러내는 살기 좋은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커뮤니티웰빙 수준조사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개인차원의 인식조사와 지역환경에 대한 평가가 다른 관점으로 비추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바이다. 서울의 경우 거주하고자 하는 선호가 강한 지역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실제 커뮤니티웰빙이 측정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들은 지역자본의 특성과 각 지역의 환경여건 및 조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이 점은 자치단체의 주민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신중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기영화·서인석·이승중. (2014). 커뮤니티웰빙의 이론개념 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6(3): 243-269.
- 기영화 외. (2014). 커뮤니티웰빙 연구를 위한 국제지표분석: 한국적 함의의 도출, 『지역발전연구』, 2291): 1-35
- 김용하 외. (2009). 「OECD 국가 행복지수 산정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명호. (2009). 경제사회발전지표의 개발 및 응용. 『한국경제포럼』, 2(4): 115-131.
- 서인석·이승중·기영화. (2014). 지방행정서비스와 커뮤니티웰빙 구성요소 간 관계: Kee 모형의 6개 자본요인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3(2): 175-202.
- 서재호·김혜정·이승중. (2012). 지방정부의 가치지향으로서 커뮤니티 웰빙에 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6(1): 33-56.
- 소진광. (2004). 사회자본의 측정지표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6(1): 89-118.
- 이승중. (1998). 『21세기 지역주민의 삶의 질』, 서울: 집문당
- _____. (2005). 『지방자치론』. 서울: 박영사
- 장영식 외. (2007). 『한국인의 삶의 질 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통계청. (2009). 『OECD 세계포럼의 이해』. 통계청
- AECOM Canada Ltd. (2009). *Applying community well-being: lessons and experience of Canadian practitioners*. NWMO SR-2009-02.
- Atkinson S, Fuller S and Painter J. (2012). *Wellbeing and place*. In: Atkinson S, Fuller S and Painter J (eds) *Well-being and Place*. Aldershot: Ashgate.
- Cuthill, M. (2002). *Coolangatta: A portrait of community well-being*. Urban Policy and Research, 20(2), 187-203.
- Gartner Lee Ltd. (2007). *The Role and Application of Sustainable Livelihoods Framework For Measuring & Monitoring Community Well-Being*. NWMO SR-2007-12.
- Lee et al. (2016). *Social Factors and Community wellbeing*, Publisher Springer
- Kee. (2017). *Multi-dimensional Model of Community Wellbeing from a Public Service Delivery Perspective*, in Phillips, R. & Wong, C., Handbook of Community Well-Being research. Publisher: Springer

- Kim and Lee. (2013).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 Community Wellbeing Index in Korean metropolitan cit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9(2): 533-558.
- Lee & Kim. (2017). *Achieving Community Well-Being Through Community Participatory Governance*. in Handbook of Community Well-Being research. Publisher: Springer
- Lee & Phillips. (2014). *Community Wellbe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Springer
- Lee. (1998). *Quality of Life of 21st Century Local Residents*
- Lee et al. (2016). *Social Factors and Community Well-being*, Publisher: Springer
- Marks, N and Steuer, N. (2008). *Local Wellbeing: Can we measure it?* London: Young Foundation.
- _____. (2010). *Taking the temperature of local communities The Wellbeing and Resilience Measure(warm)*. London: Young Foundation.
- OECD. (2014). *How's Life in Your Region? Measuring Regional and Local Well-being for Policy Making*. Paris: OECD.
- OECD Better Life Index 홈페이지(<http://www.oecdbetterlifeindex.org>)
- Phillips, R. & Wong, C. (2017). *Handbook of Community Well-Being research*. Publisher: SpringerProgress: Overview and Conceptual Approach.
- Pieter, Smits, Rutger Hoekstra. (2011). *Measur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ocietal Progress: Overview and Conceptual Approach*. Statistics Netherlands.
- Rath, T. & Harter, J. (2010). *Wellbeing-The Five Essential Elements*. New York: Gallup Press.
- Smale, Michale, B., Labonté, et al. (2011). *The Canadian Index of Wellbeing*. Technical Report 1.0. Waterloo, ON: Canadian Index of Wellbeing and University of Waterloo.
- Smits, J. & Hoekstra, R. (2011). *Measur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ocietal*
- Sarah C. White. (2008). *But What is Wellbeing? A Framework for Analysis in Social and Development Policy and Practice*.
- The Canadian Index of Wellbeing 홈페이지(<http://ciw.ca>)
- The City of Calgary. (2010). *Indices of Community Well-Being, 2006 for Calgary Neighbourhoods*. Report prepared by the Social Policy and Planning Division of Community and Neighborhood Services, City of Calgary.
- Tomaney, John. (2015). *Region and Place III: Well-being*. Progress in Human Geography, pp: 1-9.

- United Nations. (2007). *Indicators of Sustainable Development: Guidelines and Methodologies*.
Community Indicator Victoria 홈페이지(<http://www.communityindicators.net.au>)
- Veenhoven, Luut. (2012), "Happiness also known as life satisfac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in Kenneth C. Land, Alex C. Michalos, M. Joseph Sirgy (Eds.),
Handbook of Social Indicators Publisher: Springer.
- Wiseman, J., & Brasher, K. (2008). *Community wellbeing in an unwell World: Trends, challenges, and possibilities*. Journal of Public Health Policy, 29(3): 353-366.
- Wiseman, John, Warwick Heine, Anne Langworthy, et al. (2006). *measuring wellbeing, engaging communities*. VCIP Project Team

기영화: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Ph.D(논문: A Study of Adult Education Needs of Korean Americans: Barriers to Participation, 1993)를 취득하고 송실대학교 평생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는 커뮤니티웰빙, 공무원HRD, 노인인력개발이다. 주요 논문은 "An Analysis of the Relative Importance of Components in Measuring Community Wellbeing"(Social Indicators Research, 2014), "Sing, Dance, and Be Merry: The Key to Successful Urban Development?"(Asian Social Science, 2014), "Social Factors and Community Well-being, Publisher: Springer, 2016) 등이 있다.

정서린: 송실대학교에서 평생교육학 박사학위를 받고 (논문제목: 중고령 학습자 경험학습 과정)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지방공무원의 경험을 갖고 현재 커뮤니티 웰빙연구센터 전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관심분야는 노인교육, 퇴직 전문인력의 사회공헌일자리 활성화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민교육 분야이다.